

8/3/15

설교 제목 :희년의 축복

전하는 자: 김순배 강도사

본문: 레위기 25: 1-12

(레 25:1)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2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절관주** 출 23:10

(레 25:3)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레 25:4)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레 25:5)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절관주** 왕하 19:29

(레 25:6)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절관주** 레 25:20, 레 25:21

(레 25:7)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레 25: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레 25:9)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레 25: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소 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 25:11)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레 25: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소화해 내기도 어려운 책입니다.

초신자들이 "아 나도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볼까?" 걱정하며 마음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이야기책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까지 잘 나갑니다.

출애굽기도 괜찮습니다.

이대로라면 성경 통독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이르게 되면 무슨 법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골치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말이 그말 같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도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떤 성경 학자는 레위기만 제대로 알면 성경 모두를 아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 책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으로 본래 히브리 이름은 '와이크라' '그리고 그(여호와)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각 책의 히브리 이름은 그 책에 나오는 첫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 1: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칠십인 역에서 '레비티쿠스(Leviticus)'라고 책 이름을 붙인 것이 발단이 되어 그 후 많은 역본들이 이 명칭을 사용했고 그런 연유로 레위기가 된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종교적인 예식법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결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책은 명칭과 같이 단순히 레위 지파나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인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은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의식 법은 신약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성경 가운데 레위기만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책도 없습니다.

특히 본문 레위기 25 장의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를 보여 줍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십계명 중 제 4 계명인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제도로

사람 뿐만 아니라 토지 동물까지도 배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나누기 전 먼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년은 매 7 번째 되는 해를 가리키며 6 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생산 수확하고 제 7 번째 해당하는 해에는 사람과 땅, 짐승 모두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해입니다.

안식년에는 밭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과수를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따라서 경작하거나 가꾸지 않고 난 소출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합니다.

(레 25:4)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레 25:5)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레 25:6)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레 25:7)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면 희년은 언제 입니까?

안식년이 7 번 지나고 그 다음 해인 오십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00 년에 희년이 두 번 있는 것입니다.

(레 25:10) 너희는 오십 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소 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 25:11)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레 25: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은 제 49 년째 대 속죄일의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대 속죄일은 유대인 월력으로 치면 7 월 10 일 우리 달력으로 치면 9, 10 월쯤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나팔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은 나팔이었고, 또 하나는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은 나팔은 주로 국가의 행사나 일반 회중의 회집이나 중대한 국가적인 행사 때에 사용되었다.

반면에 양각 나팔은 주로 종교 행사와 하나님께서 명한 절기, 즉 성회 때에 사람들을 소집하거나, 그 날을 선포할 때에 사용하였습니다.

대 속죄일에 부는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희년을 영어로 'jubilee'라고 하는데 양각 나팔을 의미하는 '요벨(jobel)'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한자로는 기쁨 희(僖)자를 써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 안식년'(super sabbath)라고도 하는데 49 년째 안식년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를 붙인 것입니다.

희년이 오면 49 년째도 안식을 하고 50 년째에도 안식을 하게 되어 2 년 연속 쉬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2015 년 9 월 23 일부터 희년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 맞는 희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지켰던 첫 번째 희년으로부터 (BC 1367-1366 으로 추정) 정확히 70 번째 되는 대 희년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Years of Israel's Jubilees ?

The Jubilees clock likely began ticking in 1416 BC when the children of Israel entered Canaan. The first Jubilee was 49 years later in 1367 BC. Every 49 years another Jubilee year has occurred.

| | Year - BC | | Year - BC | | Year - AD | | Year - AD | | Year - AD |
|----|-----------|----|-----------|----|-----------|----|-----------|----|-----------|
| 1 | 1367 | 15 | 681 | 29 | 6 | 43 | 692 | 57 | 1378 |
| 2 | 1318 | 16 | 632 | 30 | 55 | 44 | 741 | 58 | 1427 |
| 3 | 1269 | 17 | 583 | 31 | 104 | 45 | 790 | 59 | 1476 |
| 4 | 1220 | 18 | 534 | 32 | 153 | 46 | 839 | 60 | 1525 |
| 5 | 1171 | 19 | 485 | 33 | 202 | 47 | 888 | 61 | 1574 |
| 6 | 1122 | 20 | 436 | 34 | 251 | 48 | 937 | 62 | 1623 |
| 7 | 1073 | 21 | 387 | 35 | 300 | 49 | 986 | 63 | 1672 |
| 8 | 1024 | 22 | 338 | 36 | 349 | 50 | 1035 | 64 | 1721 |
| 9 | 975 | 23 | 289 | 37 | 398 | 51 | 1084 | 65 | 1770 |
| 10 | 926 | 24 | 240 | 38 | 447 | 52 | 1133 | 66 | 1819 |
| 11 | 877 | 25 | 191 | 39 | 496 | 53 | 1182 | 67 | 1868 |
| 12 | 828 | 26 | 142 | 40 | 545 | 54 | 1231 | 68 | 1917 |
| 13 | 779 | 27 | 93 | 41 | 594 | 55 | 1280 | 69 | 1966 |
| 14 | 730 | 28 | 44 | 42 | 643 | 56 | 1329 | 70 | 2015 |

희년이 오면 2년을 연달아 쉬게 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반겨야 하는데 웬지 사람들은 불안해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 25:20)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레 25:21)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삼 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레 25:22)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희년을 지키게 하기 위해 48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1년째 농사를 지어 소출이 나올 때까지 먹을 삼년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믿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쉬지도 않고 일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희년이 되면 시행하는 제도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유를 공포하는 것(proclamation of liberty) 입니다.

(레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25:10)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속죄소 위 곧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부자도 가난한자도 권력자도 약자도 그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본래의 땅을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년을 알리는 양각 나팔 소리는 귀환의 소리요, 회복의 소리요, 해방의 소리인
것입니다.

2. 토지 소유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 년 노예 생활을 함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고 40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열두 지파가 제비 뽑기로 땅을 배분 받게 되었는데 그 땅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합니다.

(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25:23)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땅이지만 그 소유주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요 나그네로 우거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배분받은 사람이 살다가 가난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 잠시 값을 받고
팔수는 있었지만 나중에 돈을 벌면 무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못 무르더라도 친척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땅을 돈을 주고
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24)

(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25:25)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레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으면
25:26)

(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25:27)

(레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25:28)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토지 무르기(Property redemption)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가난해서 팔았을 때 그 사람의 동족이나 친척이 돈을 주면서 그 땅을 다시 찾고자 할 때에는 물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무를만한 돈도 없고 부자친척도 없으면 50년을 기다리면 됩니다.

즉 희년이 되면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무조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주택 소유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레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25:29) 안에 무르려니와

(레 일 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25:30)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레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 주기도 할
25:31)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살다가 가난해서 집을 팔았다고 한다면 집을 산 사람은 희년이 되면 그 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성벽을 둘러서 성 안에 있는 집은 일년 안에 무를 수 있고 일년이 지나면 산 사람에게 영구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 토지도 주택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4. 노예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레 25:39)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레 25:40)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노예 제도는 악하다고 하지만 죽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 노예로 살더라도 우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인정은 하지만 한번 노예 삼았다고 무한정 노예로 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을 경우는 우거하는 객처럼 대하고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풀어 주어 자유롭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드신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1. 토지 소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면서 이름을 붙여 등기를 쳐놓고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성경적인 복지 사회입니다.

3. 무엇보다도 희년이라는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제도를 통해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지시하신 의도는 물론 7 년마다 1 년을 안식년으로 지킴으로써 사람과 땅을 쉬게 하자는데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의도는 7 년 중에 1 년은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명상하는 즉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는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하나님과 거리끼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해결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려 감사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6 년간의 노동 기간보다 오히려 7 년째 되는 안식년이 더 중요하고 귀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도 희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찾으십니다.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희년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경악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70 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햇수 70 년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대하 36:21)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칠십 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희년 제도를 제대로 실행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사회는 참된 복지 사회의 모델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죄성은 이런 복지사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런 유토피아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유토피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영원한 복지 국가입니다.

죽지도 아니하고, 굶는 자도 없고, 노예 된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희년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 61: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¹⁾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사 61:2)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40 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 들어간 곳이 나사렛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1 장 1-3 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것,

셋째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

넷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해인 희년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 사회에 희년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희년을 지금 맞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년은 오십년 만에 오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포로 되고, 죄에 눌러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제 구원의 때, 자유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그리고 죄에 눌러 살지 말고, 예수 믿고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연속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속죄하실 때에 그 때 이미 속죄일의 나팔 소리가 울린 것입니다.

희년의 기쁨을 한껏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